

# 신년사에 어린 송고한 통일애국의 세계

새해의 첫 아침 겨레 모두의 가슴을 울려준 신년사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지니신 한없이 송고한 민족애와 투철한 민족자주사상, 확고한 통일외지가 자자구구마다에 흘러넘치고 있다.

무엇보다도 신년사에는 세계적인 핵강국지위에 오른 우리 민족의 위상에 맞게 북과 남이 과거에 없애이지 말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자주통일의 돌풍을 열어 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결심과 의지가 어려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우리는 앞으로 민족자주의 가치를 높이 들고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나갈 것이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내외반통일세력의 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새 역사를 써나갈 것이라고 천명하시었다.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통일의 밝은 앞길을 열어 나가시려는 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그이께서는 이미 6년 전 4월 위대한 주석님 탄생 100돐 경축열병식에서 하신 연설에서 오랜 세월 한 강토에서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겨레가 70년 동안 분렬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라고 하시면서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 나가야 한다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책임적이고도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천명하시었다.

민족의 분렬을 하루빨리 끝장낼 단호한 결심과 의지를 안으시고력 사의 명 판문점에 송고한 평 판문점에 새기신 원수님이다.

그이의 심중에는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 겨레의 통일념원을 꽃피우실 신념과 의지가 차 넘치고 있다.

우리 민족에게 분렬의 비극을 강요한 외세는 결코 통일을 선사하지 않는다. 조국통일의 주인은 우리 민족자신이며 온 겨레의 단합된 투쟁에 의해서만 앞당겨올 수 있다. 이 진리를 누구보다 가슴 깊이 새겨안으신 원수님께서 통일문제해결에서 우리 민족끼리, 민족자주의 가치를 시종일관 내세우고 계신다.

신년사의 구절마다에는 또한 북과 남이 주인이 되어 군사적대결과 불신을 해소하고 외세가 강요하는 핵전쟁의 참화를 막으며 민족공동의 안녕과 조선훈도평화를 수호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평화애호리념과 뜨

거운 민족애가 맥동치고 있다.

우리 민족은 누구나 평화를 갈망하고 있다. 이 땅에서 다시 전쟁이 터지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외세가 이 땅의 인민들을, 우리 겨레의 운명을 통략하고 위협하려는 것을 절대로 용납치 않으신다.

지난해에 악의 제국인 미국에서 《완전파괴》, 《절멸》이니 하는 녀두리가 울려나왔을 때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시면서 미국의 늑대리미치팡이를 반드시 불로 다스릴 단호한 결심과 의지를 표명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미국이 아무리 핵을 휘두르며 전쟁도 발족동에 광분해도 이제 우리에게 강력한 전쟁억제력이 있는 한 어찌할 수 없다. 북과 남이 마음만 먹으면 능히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긴장을 완화시켜나갈 수 있다고 언명하시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긴장을 완화시켜나갈수록 북과 남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북과 남이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군사적으로 침에게 대치되어있는 상태에서 남조선 당국이 이 땅에 화염을 퍼부으며 신성한 강토를 파괴물들이려는 외세와의 핵전

쟁연습에 계속 가담한다면 군사적긴장은 더욱 격화되고 나중에는 전쟁이 터질 수 있다.

전쟁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위하여 북남이 공동으로 노력하자는 그이의 애국의 호소는 그래서 더욱 절절하고 겨레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 있다.

신년사에는 북과 남에 다같이 의의있는 울해를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온 세상에 과시하는 사면적인 해로 빛내이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없이 넓은 도량과 대용단도 어려웠다.

동결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울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만한 해로 빛내야 하는 일을 지향해나가는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여야 한다, 진정으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원한다면 남조선의 집권여당은 물론 야당들, 각계각층 단체들과 개별적인 사들을 포함하여 그 누구에게도 대화와 접촉, 래왕과 협력, 교류의 길을 열어놓을 것이라 는 신년사의 구절구절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남조선에서 머지않아 열려야 하는 겨울철울림경기대회에 대해서도 우리는 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대 표단과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시었다. 한없이 넓은 도량과 민족애가 어려웠고 오랜 기간 응어리진 겨레의 불신과 대결의 감정을 봄눈처럼 녹여주시는 위인의 따뜻한 말씀이다.

사랑과 정의 넘쳐나는 그이의 신년사가 울려 퍼진 새해의 첫 아침부터 조 선반도에서는 화해와 단합의 열풍이 세차게 일어났고 있다. 그이의 신년사에 접한 남조선당국은 《북남간의 새로운 국면시작을 알리는 긍정적전신호》,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 《벽찬 제안》이라고 하면서 적극 환영하였고 한 인사는 《북남, 해외, 제정사면적인 해로 빛내야 하는 일을 지향해나가는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여야 한다, 진정으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원한다면 남조선의 집권여당은 물론 야당들, 각계각층 단체들과 개별적인 사들을 포함하여 그 누구에게도 대화와 접촉, 래왕과 협력, 교류의 길을 열어놓을 것이라 는 신년사의 구절구절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남조선에서 머지않아 열려야 하는 겨울철울림경기대회에 대해서도 우리는 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대 표단과견을 포함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하신 신년사는 남조선의 언론들과 전문가들, 각계층 인민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남조선의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상사진 문헌을 정중히 모시고 《김정은위원장, 매우 자신감있는 목소리로 신년사 진행》, 《밝은 회색양복, 빨레안경으로 자신감 한껏 퍼력》, 《핵무력 완성을 바탕으로 대미핵억제력 과시》, 《형식과 내용에서 확연히 달라진 2018년 신년사》 등으로 대서특필하였다.

《런 합 뉴스》와 《동아일보》, 《노컷뉴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2018년 신년사는 옷차림과 음성, 자세 등에서 강한 자신심에 넘쳐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면서 《지난해 신년사때에는 검은색양복차림이였지만 올해에는 한결 여유가 엮보이는 밝은 회색갈의 양복과 넥타이차림이였다》, 《관록있는 지도자의 느낌을 주었다》, 《보무도 당당했고 정면을 응시하며 자신감있는 목소리로 신년사를 하였다》고 하였다.

그 러 면 서 《북의 지도자가 엄동설한에 밝

은 양복을 입고 나온 것은 처음이다》, 《부드럽고 원만한 지도력을 과시하였다》, 《매우 자신감이 넘치고 핵, 미사일 기술도 완성되었다는 것이 읽힌다》고 하였다.

세종연구소 통일 전략연구실장과 동국대학교 교수들 비롯한 전문가들은 《김정은위원장이 핵 무력완성을 바탕으로 그 어느때보다 대미핵억제력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핵무력완성에 따른 전략 국가로서의 부상을 토대로 한 강한 자신감의 표출이다》, 《국가핵 무력완성을 토대로 남북관계개선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출한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고 하였다.

《국가안보전략 연구원》은 1일 배포한 《2018년 김정은위원장신년사 특징 분석》에서 《김정은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창겨울철 올림피를 거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남북관계개선에 대한 자신감과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고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신년사는 온 겨레의 가슴마다에 북남관계개선과 자주통일에 대한 환희와 락관을 안겨주고 있다.

본사기자 김철진

## 강한 자신감이 넘치는 신년사

희망찬 새해의 첫기슭을 떠난 사람들중에서 발걸음소리 제일 높은것은 청년들이다. 올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휘황한 설개도를 펼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청춘의 열정과 기백이 넘치는 청년들이 공장, 발전소, 건설장들 그리고 과학, 교육, 보건, 문화 예술, 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앞장에 서 있다.

청년들의 미더운 모습이 자랑하는 공화국의 현실이다. 나라의 밝은 미래가 청년들의 얼굴에 비껴있다.

사회발전에서 청년들이 노는 역할은 자못 크다. 청년들이 어떻게 준비되는가에 따라 나라와 민족의 장래가 좌우되는 법이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청년문제를 바로 해결한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수천만명의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이 방황하고 마

약, 알콜중독자, 자살자가 끊임없이 늘고있는것이 오늘의 세계현실이다. 극도로 부패타락하고 이지리진 청년들이 살인과 락탈, 폭력행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사회는 그들을 우환거리로 치부하면서 외면하고 박대하고 있다. 세계의 열점지역, 분쟁지역들에서 테로범이 되고 류혈참극의 희생물로 되고 있는것도 청년들이다.

그러나 조선에서 청년들의 모습은 이와는 판관 다르다. 령도자의 애국의 뜻과 구상을 일심으로 받들고 따르는 고결한 충정의 열도와 국가와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 아름다운 리상과 포부로 충만된 열정과 고상한 미덕은 조선청년들의 고유한 특질이다.

위대한 령도자의 탁월한 청년중시사상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조선청년들은 세대를

이으며 민족자주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주인공으로 자기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조선청년들은 전후 어려운 시기에도 복구건설에서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세웠으며 천리마를 타고 질풍같이 내달려 짧은 기간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우는 데서도 혁혁한 위훈을 세웠다. 사회주의운명을 판가름하는 반제반미대결전의 준엄한 나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 조국을 결사 수호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환의 시대를 여는데 크게 기여한것도 청년들이다.

오늘 공화국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중시사상과 령도를 그대로 이어가시

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어 청년강국의 존엄과 위용을 높이 떨치고 있다.

청년들이 들끓어야 온 나라가 들끓고 청년들의 발걸음이 빨라야 부강할 미래가 앞당겨지게 된다는 경애하는 원수님

우주를 정복하는 경이적인 발전과 최첨단돌파의 기적적인 성과들, 청년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과 체육, 예술을 비롯한 문명강국건설에서 일어나고 있는 눈부신 변혁들은 리상과 포부가 원대하고 창조적임이 무궁무진한 조선청년들의 슬기와 용맹을 뚜렷이 보여 주고 있다.

조선청년들은 사회주의대가를 떠메고나가는 미덕의 소유자들이다. 부양자가 없는 젊은이들의 친자식이 되고 영예 군인들과 일생을 같이하며 부모모 않은 아이들을 스스로 맡아 《처녀어머니》가 되는 청춘들의 고상한 미덕은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다. 전 세대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사회주의제도에서 행복을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삶의 순간순간을 창조와 위훈으로 빛내이려는 것은 조선청년들의 삶의 목표로, 지향으로 되고 있다.

의 뜻깊은 말씀에 그이의 청년중시사상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 청년이라면 하나를 연구해도 세계를 놀래우는 최첨단의것을 내놓고 한가지 일을 해도 하늘을 나는 초음속비행기의 속도로 해제끼는 웅대한 포부와 진취성이 있어야 한다 는 그이의 말씀에 청년들에 대한 두터운 믿음과 크나큰 기대가 깃들어있는것이다. 령도자의 각별한 사랑과 보살핌속에서 나라의 기둥으로, 미래의 역군으로 떠받들리우는 청년들의 애국열은 불처럼 뜨겁다. 조국이 부르는 곳에는 어디가나 청년들이 있고 그들이 세운 위훈은 별처럼 빛나고 있다.

《이북의 청년들은 민족의 자랑이고 보배다》, 《북의 청년들은 타락과 절망으로 오염된 지구에 청신한 기운을 안아 오는 인류의 귀중한 꽃이다》라는 동경과 부러움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 국제사회계는 《조선청년들의 심장은 모두 해불처럼 활활 타 오르고 있다》, 《조선청년들은 령도자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청춘을 바치는 애국의 청년대오로 되었다》, 《불패의 청년대군을 가진 조선의 미래는 창창하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애국심에 불라는 청년들을 굳게 믿고 그들이 사회주의강국의 문패를 남먼저 달게 하 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송고한 뜻이고 의지이다. 그이의 령도따라 조선청년들은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선봉대, 선구자, 개척자의 영예로운 본분을 다하고 있다.

500만청춘들의 미더운 모습에서 인민들은 국가의 창창한 앞날을 락관하고 있다.

옥철음

# 청년 강국의 현실

##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

**신년사를 마치시는 길로**

새해전 1월 1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신년사를 마치시는 길로 평양음악원과 애육원을 찾으시었다.

그이께서는 식당에 들리시어 육아원과 애육원들에 물고기과 고기, 납새, 과일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식료품들을 떼 구지 않고 보장해주는 체계를 그쁘하게 세워주었는데 아이들의 성장발육에 맞게 영양관리를 위생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해야 한다고 이리시었다.

이렇게 그이께서는 스키장

라보시던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원아들에게 이런 훌륭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설을 함께 쇠니 얼마나 좋은가고, 힘들어도 보람있는 길을 걸어왔다는 자부심이 생긴다고, 이 애들의 모습을 보니 우리 조국의 밝은 앞날에 대하여 더 굳게 확신하게 된다 고 하시었다.

**시운전중에 있는 삭도를 타보시며**

일군들을 보시며 그이께서는 인민들이 리용할 모든 주로들을 다 보겠다고 하시며 안전성이 채 확인되지도 않은 삭도를 타고 대화봉정점으로 향하시었다.

이렇게 그이께서는 스키장

실비의 안전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삭도를 타보시고 삭도가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설치되었고 주로들의 상태도 나무랄데 없다고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본사기자

